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 결의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9514 |
|----------|------|

제안연월일 : 2014. 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자행한 행위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공식사죄와 배상을 이행하기는커녕 역사왜곡과 노골적인 인권침해 발언 등 망언과 망동을 지속하고 있음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역사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기림비 설치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69년째 되는 현재까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없이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를 그칠 줄 모르는 일본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외교적 활동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산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려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국회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일제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며,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국회 외부에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를 설치하여,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와 우리나라를 찾는 주요 외국 인사들이

공원을 방문하여 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교육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외교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념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의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노력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 제안경위

가. 2013년 8월 12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 2014년 2월 21일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원 조성 결의안」을 각각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4.2.14),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4.2.2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21)에서 이상 2건의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일본국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전쟁범죄임에도 일본정부는 해방 69년이 되도록 이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무라야마담화 및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그치지 않고 있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 인신매매라는 역사상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우리 국회는 그 동안 수차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 및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결의문을 보냈고, 진심어린 이행을 요구하여 왔 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8년 9월, 오키나와현 미야코섬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림비 설치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기림비 설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음.

2010년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공원에 한인시민참여센터 주체 로 기림비가 설치되었으며, 2012년에는 뉴욕주 닷소 카운티 아이젠하 워 공원 현충원에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고, 2014년에는 뉴욕주 상원 과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문 원문이 그 옆에 각각 세워진 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및 나눔의 집 박물관 외에도 2012년에는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을 전후로 하여 공주 영명고등학교, 서울 서초고등학교에 기림비와 소녀상이 각각 세워지고, 통영시 남망산 공원에 민간의 힘으로 기림비가 세워졌으며, 거제시에서는 공유지 제공과 보조금 지원으로 거제문화예술관 소공원에 소녀상이 세워졌고, 성남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시청 공원 내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등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모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이미 한·일간의 문제를 넘어선 세계 여성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된 상황에서,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점점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와 같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이외에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금과 같이 민간의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대한 수동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념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마련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 등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임.